

매체적 특성을 통해 본 『매일신보』의 <충노 만석전> 연재 배경*

정보라미**

- I. 서론
- II. 일제 조선총독부 기관지로서의 『매일신보』
- III. 근대 상업적 매체로서의 『매일신보』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1936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보상의 장편소설 <충노 만석전>의 연재 배경을 매체적 특성과 관련해 규명하는 데 있다. <충노 만석전>은 기존 야담인 『계서잡록』의 열부 박 씨 이야기를 확장한 작품으로, 노비 만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사의 초점을 열(烈)에서 충(忠)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본고는 이러한 서사적 변용이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기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사에서 주노 관계가 부자 및 군신 관계로까지 거듭 치환되는 양상이 유교적 충효 관념을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직결시켜 식민지 신민화를 피하고자 했던 일제 ‘국민 도덕론’의 교묘한 서사적 실천임을 밝혔다. 또한, 1930년대 『매일신보』가 독자층의 확대를 피하던 상황에서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을 연

* 이 논문은 2026. 2. 10.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문학회 동계학술대회의 발표문 <『매일신보』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을 통해 본 열부 박씨 이야기의 근대적 전변>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토론자 이승은 선생님과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부산대학교 접필재연구소 전임연구원.

재하게 된 것이 한문 해독층을 독자층으로 포섭하고자 한 상업적 매체 전략의 결과였음을 규명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충노 만석전>은 일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려는 기관지로서의 기획과 신문 경영을 위한 상업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매일신보』라는 특정 매체의 전략적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충노 만석전>, 이보상, 『매일신보』, 연재소설, 기관지, 상업적 매체, 1930년대, 준전시체제기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1936년 『매일신보』의 장편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이 창작되고 연재된 배경을 『매일신보』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해 살펴보려는 데 있다.

<충노 만석전>의 작자인 진암(震庵) 이보상(李輔相, 1882~1948)은 1930년부터 1942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매일신보』에 15편의 한문 현토체 소설을 연재했다.¹⁾ 이 소설들이 대개 고전소설이나 야담 등 전통시대 텍스트를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거듭 언급된 바 있다.²⁾

그중 하나인 <충노 만석전>은 1936년 1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일신보』에 총 183화로 연재된 소설이다. <충노 만석전>은 이보상의 몇 안 되는 순수 창작 소설로 오해되기도 했으나,³⁾ 애초부터 “조선시대 열녀 박소사와 충노 만석의 일화를 확대한 작품”으로 지목되었듯⁴⁾ 기존 야담 텍스

1) 김성철, 『일제강점기 한문소설 작가 震庵 李輔相의 행적과 작품 활동 연구』, 『한국학연구』 4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27~328면.

2) 김성철, 앞의 논문, 328~332면; 이대형, 『<충노 만석전(忠奴萬石傳)>과 유흥문화의 담당층』, 『열상고전연구』 39, 열상고전연구회, 2014, 268면; 조은애, 『전시체제기 『매일신보』 연재소설 연구 - 매체 전략과 문화적 선전·동원 기능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 반교어문학회, 2015, 440면.

3) 이대형(2014), 앞의 논문, 268면.

4) 김성철, 앞의 논문, 328, 331면.

트인 『계서잡록』의 열부 박씨 이야기를 확장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충노 만석전>을 지은 이보상은 『매일신보』의 기자이면서,⁵⁾ 『매일신보』에 가장 많은 장편소설을 연재한 작가이기도 했다.⁶⁾ 즉, <충노 만석전>은 『매일신보』의 기자로 재직하던 이보상이 기존 야담의 내용을 확장해 한문 현토체로 창작한 『매일신보』의 연재소설인데, 이는 고전 서사를 확장해 창작한 한문 현토체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보상의 『매일신보』 연재소설 작품 대부분과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일련의 소설들이 연재된 배경을 이보상이라는 작가 개인의 행적과 의식을 통해 이해하거나,⁷⁾ 구활자본 고소설의 유행, 야담 운동의 흥행, 내선일체 강화의 일환으로 조선 전통에 관심을 가졌던 일제의 정책,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한 고적보존운동 등의 영향에 따른 역사물과 역사 담론의 흥성 같은 당대의 거시적인 역사 문화의 흐름과 관련해 주로 설명해왔다.⁸⁾ 이에 <충노 만석전>이 당대 『매일신보』에 연재된 배경에서 『매일신보』라는 매체의 특성 및 기조, 당대의 구체적 상황, 그에 따른 입장이나 전략 등은 거의 간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김영민, 이승은, 조은애는 이보상의 연재소설이 『매일신보』가 지식인 독자와 대중 독자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취했던 이중의 서사물 연재 구도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어 본고의 논의에 중요한 참조가 된다.⁹⁾ 그럼에도 이들의 견해는 <충노 만석전>의 분석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을뿐더러, 『매일신보』라는 매체가 갖는 ‘총독부 기관지’라는 정치적 성격과 ‘근대 상업 매체’라는 상업적 성격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5) 이대형, 『『매일신보』에 연재된 한문현토소설 『春桃奇遇』와 작가 李輔相』, 『민족문화사연구』 50,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84~286면.

6) 『매일신보』 창간 이래 이보상이 가장 많은 장편소설을 연재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조은애, 앞의 논문, 446면.

7) 김성철, 앞의 논문, 315~325면; 이대형, 『李輔相의 신문연재 장희체 한문현토소설 연구』,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233~235면;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6, 197~198면.

8) 이승은, 『이보상 作 <姜邯贊傳>의 서사구성 방식 연구』, 『우리문화연구』 42, 우리문화학회, 2014, 86~87면; 이대형(2015), 앞의 논문, 232~233면.

9) 김영민, 『『매일신보』 소재 장형 서사물의 전개 구도 -192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2011, 221~222면; 이승은, 앞의 논문, 86~87면; 조은애, 앞의 논문, 436~444면.

그런데 <충노 만석전>이 보여주는 서사적 특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설이 『매일신보』의 연재소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노 만석전>이라는 소설은 이보상이라는 작가 개인의 창작물이기도 하고 1930년대라는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일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이자 근대 상업 매체인 신문인 『매일신보』의 연재소설이기도 한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이 소설의 연재 배경으로 『매일신보』의 매체적 특성 및 기조, 당대 『매일신보』가 처한 구체적 상황이나 그에 따른 전략, 당시 특정 장르에 대해 보였던 관심 등을 두루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매일신보』가 처해있던 구체적 상황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충노 만석전>이 1930년대 『매일신보』의 연재소설로서 가졌던 서사적 특질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피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에 연재된, 고전을 활용해 재창작된 이른바 ‘구소설’들을 고찰하는 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일제 조선총독부 기관지로서의 『매일신보』

<충노 만석전>은 계서잡록』 3권(利) 43화로 수록된 열부 박 씨 이야기를 총 183화의 장편 연재소설로 대폭 확장한 것이다. <충노 만석전>의 원천 자료가 된 『계서잡록』의 해당 이야기는 1820년~1825년 경복 영친의 양반가 여성 박 씨가 이웃 부귀가의 무도한 인물 김조술로부터 희롱과 음해를 받고 송사(訟事) 과정에서 수모를 겪다 자결하자, 박 씨의 충복(忠僕) 만석이 거듭된 상소와 격쟁을 통해 실상을 밝혀낸 실제 사건을 골자로 한다.¹⁰⁾

이 사건은 『일성록』,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나 실기(實記), 서사(書事), 원정(原情), 전(傳), 서사 한시 등을 통해 공적(公的),

10) 열부 박 씨의 송사 사건은 야담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보상은 그중에서도 『계서잡록』에 수록된 이야기를 확장함으로써 <충노 만석전>을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충노 만석전>과 그 원천 자료인 『계서잡록』 박 씨 이야기의 구체적 영향 관계가 먼저 논증되어야 함에도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사적(私的)으로 기록되는 한편, 『계서잡록』에서 야담으로 만들어진 이래 『기문총화』, 『계서야담』, 『청구야담』, 한글본 『청구야담』, 『동야휘집』, 『청야담수』 등의 야담집으로 전제(轉載)되고, 근대 한글 야담집 『조선괴담』의 <죽은 지 사 년에 시테가 변치 안타>, 『매일신보』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 등으로 변용되었다.¹¹⁾

그런데 <충노 만석전> 이전의 관련 기록 및 서사는 본래 그 초점을 만석보다 박 씨 쪽에 더 가깝게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충노 만석전>의 원천 자료인 『계서잡록』의 해당 이야기는 기타 관련 기록들과 비교해 볼 때, 애초부터 박 씨와 더불어 만석을 주요 인물로 고려하고¹²⁾ 만석에 대한 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이 특징으로 지적될 만큼,¹³⁾ <충노 만석전> 이전의 관련 기록 및 서사 자료를 통틀어 가장 만석을 주목한 경우라고 할 만하다.¹⁴⁾ 이처럼 『계서잡록』의 이 이야기가 『계서잡록』 이전의 다른 기록들에 비해 주인의 원수를 갚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경하며 고군분투한 만석의 충성심을 한층 더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석에 대한 시선이 작품 전면에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통해서도 짐작되듯,¹⁵⁾ 이는 그 제목에서부터 만석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운 <충노 만석전>과는 또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가령 『계서잡록』의 해당 이야기는 총 1,200자 정도인데 이를 주로 박 씨의 수난, 자결, 이적(異蹟) 등을 다루는 데 할애함으로써, 만석이 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그치고 있다.

11)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라미, 『『계서잡록』 소재 일부 박 씨 이야기의 서사화 과정과 서술 방식』, 『어문연구』 125, 어문연구학회, 2025, 235~236면 참조.

12) 만석이 박 씨 사후 김조술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격쟁 장면에서 비로소 문면에 처음 등장하는 <서영천박열부사>, <열부박씨사실기>, <충렬열전>, <노만석명쟁열정>과 달리, 『계서잡록』의 해당 이야기는 애초부터 박 씨뿐 아니라 만석 또한 주요 인물로 고려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정보라미, 앞의 논문, 257면.

13) 임완혁, 『<서영천박열부사>고』, 『구연전통과 서사』, 태학사, 2008, 356~357면 참조.

14) 이처럼 이전의 여러 기록에 비해 만석을 주목한 『계서잡록』의 이 이야기는 『기문총화』, 『계서야담』, 『청구야담』, 한글본 『청구야담』, 『동야휘집』, 『청야담수』 및 근대 한글 야담집 『조선괴담』 등 이후의 여러 야담집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15) 일찍이 임완혁은 『계서야담』에 전제된 일부 박 씨 이야기에서 “만석에 대한 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작품의 전면에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임완혁, 앞의 글, 앞의 책, 356~357면 참조.

이에 비해 <충노 만석전>에서 박 씨는 1~20화와 41화~74화에서만 등장하다 74화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 95화, 134화, 137화, 148화, 167화, 170화, 178화, 180화에서만 이적과 관련해 간간히 등장하거나 거론된다. 이는 전체 서사 중 약 1/3에 해당한다. 한편 만석은 몇몇 대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차에 등장할 뿐 아니라, 박 씨의 죽음 이후인 80화부터 183화까지 주인공으로서 서사를 주도해나간다.

이처럼 <충노 만석전>은 서사의 초점을 박 씨로부터 만석 쪽으로 크게 옮겨오면서 만석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에 대해 이보상은 소설 첫머리의 <제언(諸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명한 바 있다.

① 事係朴烈婦跡하니 宜其稱朴烈婦傳이나 ② 烈婦之事는 其節雖凜이나 其事甚略하고 ③ 萬石之效忠은 危苦如墜淵入坑하고 凜栗如烈日肅霜하야 其事甚長하고 <諸言> 1화 1936. 1. 12.

박 열부의 행적에 관한 일이므로 마땅히 <박 열부전>으로 개작해야 함에도(①) 박 씨의 일은 너무 소략한 반면(②) 만석의 일은 매우 방대하므로(③) <박 열부전>이 아닌 <충노 만석전>으로 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언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의도적 개작에는 나름의 사정과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발생한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둔 야담을 장편소설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자결로 짧은 삶을 마감한 박 씨만을 주인공으로 다루어서는 장편화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죽음을 맞으면 서사의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짝막한 이야기를 총 183화의 장편 연재소설로 재구성하기 위해 서사에서 죽음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게 되는 박 씨 대신, 지속적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만석의 존재를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소설이 여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족 부녀의 활동 반경을 크게 제한하던 전통시대를 서사적 배경으로 하는 데다 박 씨가 현숙한 열부(烈婦)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¹⁶⁾ 또한 소설의 장편화 과정에서 요

16) 박 씨가 시집은 이후로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음은 63화의 “吾夫

구되는 상상력에 큰 한계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여러 제약이 있는 열부 박 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에 조금이나마 더 자유로웠을 만석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낙점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론된다. 그 결과 만석은 이 소설에서 주인의 복수를 위해 안동으로 출발하는 80화부터 다양한 장소에서 다채로운 면모를 뽐내며 여러 사람을 만나 모험을 겪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흥미로운 서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계서잡록』의 해당 이야기가 <충노 만석전>으로 재창작 되는 과정에서 서사의 초점이 박 씨에서 만석으로 옮겨갔을 뿐 아니라 열(烈)에 대한 강조가 충(忠)에 대한 강조로 옮겨가기도 했다는 점이다. <충노 만석전>은 그 제목에서부터 충(忠)이라는 유교적 덕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니와 다음과 같이 작자의 <제언(諸言)>을 통해서도 이를 직접 표방하고 있다.

① 且烈婦는 士族女也라 其以死不辱이 宜矣로대 ② 萬石은 一稚奴라 爲主發奮하여 冒萬死 叩天階하여 意復主夫人之讎하니 誠千古之奇忠이요 亦千古之奇事也라. <諸言> 1화 1936. 1. 12.

위의 예문은 <충노 만석전>의 작자가 박 씨의 열을 사족 집안 여인의 당연한 일로 담담하게 평가하는 데 비해(①), 만석의 충은 천고(千古)의 기특한 충심[奇忠]이나 기특한 일[奇事]로 과도하게 상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②).

실제로 <충노 만석전>은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인을 지키고 그 복수를 대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는 만석의 모습을 거듭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 충심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에서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거듭 치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奴之事主가 如子事父하여 不敢專也니다.” 6화 1936. 1. 19.
- ② “小人은 是奴也니 奴猶子也라.” 46화 1936. 3. 27.
- ③ “有人이 殺我母數年에 讎不得報하여 千里北來에 無人可議하니 是以悲耳

人이 自入夫家로 不曾出門하고 不出中門커늘”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매일신보』 1936. 4. 21. 참조.

라.” 97화 1936. 6. 18.

- ④ “小人이 有殺母之讎하야 欲報其仇에 千里裹足하야 夜夕禱蒼에 使遂其志라. 每思他日에 報讎養親에 必怡愉歡悅故로 意到於此면 聲自和矣니라.” 121화 1936. 7. 24.
- ⑤ “小人無父母에 主人視之以子하고 (….) 請二個月暇하면 往省主翁하며” 183화 1936. 10. 17.

위의 서술을 통해 노비 만석은 주인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자식과 다름없는 존재로 상정되며(②, ⑤) 이에 따라 노비가 주인을 섬기는 일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된다(①). 그 결과 만석에게 주인 박 씨는 어머니[母]의 위상을 갖기도 한다(③, ④).

그런데 이처럼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등치시키려는 시도는 만석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주도 관계에서의 의무를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려는 만석의 ‘효’에 화답이라도 하듯, 만석의 본 주인 박 씨의 친정아버지나 현 주인 박 씨의 시부모 모두 만석과의 관계를 주인과 노비가 아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된다.

- ① “奴猶子也라 豈認賣乎아? 家雖貧也나 不至於此라.” 7화 1936. 1. 21.
- ② “吾視汝如子하니 父子同宿이 何傷之有리요?” 45화 1936. 3. 26.
- ③ “汝吾子也라 救汝父歸하야 勿使母로 憂悸死하라.” 80화 1936. 5. 17.
- ④ “汝는 子而非奴也니 不須嫌也라.” 95화 1936. 6. 16.
- ⑤ “吾倚汝如子하니 汝又遠行이면 吾將疇倚오?” 154화 1936. 9. 6.

박 씨의 친정아버지 박 생은 만석을 팔라는 조술의 청을 거절하며 노비는 자식과 같음을 역설하고(①), 박 씨의 시아버지 노옹은 만석을 노비가 아니라 자식으로 여긴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만석과 동숙을 하거나 만석으로 하여금 며느리 박 씨의 시신을 직접 보게 하기도 한다(②, ④). 또 만석이 투옥 중인 노옹을 구하기 위해 떠나거나 격쟁을 위해 상경을 거듭할 때 마다 박 씨의 시부모는 자신에게 만석이 자식 같은 존재임을 강조한다(③, ⑤). 이에 <충노 만석전>에서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자발적, 상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승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석의 충심은 부모 같은 자애로운 주인의 사랑에 걸맞은 ‘효’로 자리 매겨진다.

그런데 이처럼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치환하는 시도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충노 만석전>은 주노 관계를 부자 관계에 이어 군신 관계로까지 전이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된다.

- ① 奴隸之制를 世皆非之로대 惟我鮮은 愛如父子하고 視同君臣이라. “作者的 말” <次回小説豫告> 1936. 1. 11.
- ② 當是時하야 奴視主를 如父如君하고 主視奴를 如子如臣하야 服喪三年하야 衣食是共하고 榮辱與同하야 往往死於其主者 | 與孝子順孫과 烈婦忠臣으로 同其光하니 古之以孝爲治와 以義爲俗을 亦可見焉하니 吁亦偉矣라. <諸言> 1화 1936. 1. 12.
- ③ “吾人家奴也라. 奴主如君臣父子하니 背君爲逆이요 背父爲悖라. 爲逆爲悖면 不死何待리요?” 10화 1936. 1. 24.
- ④ “汝忠奴也니 忠奴猶忠臣이요, 忠臣亦孝子也라. 吾僮士類가 豈不敬之리요?” 63화 1936. 4. 21.
- ⑤ “吾君은 吾父母也라. 子有冤에 不訴父면 將何訴也리요?” 95화 1936. 6. 16.
- ⑥ “君猶父也라. 子冤訴父는 雖有罪라도 不至死也라.” 96화 1936. 6. 17.
- ⑦ “伏乞天地父母는 俯察至冤하야 俾至伸理하소서” 167화 1936. 9. 29.

①, ②와 같은 작자의 서술이나 ③과 같은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충노 만석전>의 주노 관계는 부자 관계뿐 아니라 군신 관계로까지 치환된다. 특히 ⑤, ⑥, ⑦의 예문은 <충노 만석전>이 임금을 부모와 같은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첩된 논리 위에서 충노 만석은 충신이자 효자로 재정의된다.(④)

<충노 만석전>에서 주노 관계를 부자 및 군신 관계와 통합하고, 만석이 지닌 노비로서의 충심을 자식으로서의 효와 신하로서의 충으로 치환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당대 『매일신보』가 일제의 기관지였다는 사실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충노 만석전>에서 확인되는 만석의 ‘충노’ 이미지나 충효에 대한 유별난 강조는 우리 전통 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7) 충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활용해 천황에 대한 충성을 정당화하려 했

던 일제에 의해 식민지 신민화의 도구로서 호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노 관계를 군주에 대한 충성 담론으로 전이시키고 확장한다는 점은 식민지 피지배층을 체제에 순응하는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양성하려 한 일제의 의도적 기획과 연결해 <충노 만석전>을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일제는 여러 종교를 어용화했던바 유교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한 시도는 1910년대 초 경학원을 통한 통제를 시작으로 <충노 만석전>이 연재된 193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이른바 ‘심전개발(心田開發)’을 위해 경학원 내에 명륜학원을 설립하고, 1932년 식민 정책에 순응하는 조선유교회의 창립을 전폭 지원했으며, 조선유교회가 유명무실해지자 1939년에는 이를 조선유도연합회로 재조직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줄곧 유교를 활용하며 통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려 했던 것이다.¹⁸⁾

모든 활동을 조선총독의 지휘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¹⁹⁾ 총독부의 조선 지배 정책과 밀접하게 운영된 명륜학원이 1936년 3월 4일 조선총독부령 15호의 공포에 발맞춰 그 규정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특히 살펴볼 만하다.²⁰⁾ 이때 명륜학원은 규정 제1조의 설립 목적을 기존의 “유학에 관한 교수를 하고 아울러 인격을 도야”하는 것에서, “유학을 강구하고, 국민도덕의 본의를 천명하며 아울러 인격을 도야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국민도덕 본의의 천명을 그 운영 목적으로 새롭게 표방하였다.²¹⁾ 또 학제를 본과와 연구과로

17) 김성철은 이보상의 애국 계몽 활동에 관한 의식이 『매일신보』 연재 한문소설의 창작에 “고소설의 재창작을 통해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고 추론한 바 있다. 김성철, 앞의 논문, 313~337면.

18) 성주현, 『1920년대 유럽계 단체의 조직과 활동』,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두리미디어, 2007, 66면, 82면, 106면, 122~123면; 류미나,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 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연구』 63, 한일관계사학회, 2019, 236면; 강해수, 『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교)’담론-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425면.

19)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총설> 『정부기록보존소 일제문서해제 : 학무·사회교육편』, 2003, xvii면.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news/viewPublicationList.do?bg_no=22)

20) 류미나는 ‘황도유학’을 강조하는 중심에 천황제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기관인 명륜학원이 있었음을 밝히며,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 참조된다. 류미나(2019), 앞의 논문, 236~237면.

21) 국민도덕 본의의 천명을 그 운영 목적으로 새롭게 표방하였음은 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17(1), 교육사

나누면서 상당한 한학의 소양이 있는 자에 국한하던 기존의 본과 입학 자격을 고등 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해²²⁾ 교육 대상을 근대 고등 교육을 받은 청년층으로 교체하는 한편, 한학에 조예가 깊은 청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입학 자격을 부여함으로써²³⁾ 궁극적으로 명륜학원의 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충노 만석전> 연재 당시인 1936년 총독부의 국민의식 고양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통치 기제로서 ‘국민 도덕론’이 새롭게 소환되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국민 도덕론’은 천황 중심의 ‘가족 국가관’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총독부의 국민의식 고양 정책의 일환이었다. 일제는 ‘국민 도덕론’을 통해 국민을 ‘적자’로 상징하고 국가에 대한 ‘충’과 천황·황실을 향한 ‘효’를 강조하며, ‘충’과 ‘효’가 일치되는 ‘충효일본’의 정신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²⁴⁾ 1920년대 이러한 ‘국민 도덕론’을 강조하던 일제가 1936년에 식민 정책을 위해 ‘가족 국가관’에 근거해 ‘충효’ 관념을 강조하는 ‘국민 도덕론’을 재소환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국민 도덕론’이 <충노 만석전>이 연재되던 1936년에 다시금 주요하게 호출되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이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 도덕론’의 재소환은 <충노 만석전>이 연재된 1936년의 시대적 상황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일제의 야욕이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으로 확장해 나가기 직전으로,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던 준전시체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전시체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의 문화통치를 민족말살통치로 탈바꿈해오던 과도기의 끝자락에 놓인 해이기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조선에 적용하는 등 대륙 침략을 위한 수탈과 민족 말살을 통한 조선의 영구적 지배를 그 목적으로 했던바, 이는 최종적으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국시민”을 양성하려

학회, 2007, 73면 참조; 명륜학원의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박영미, 『일제 강점기 한문고등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소고』, 『한국한문학회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236면, 242~243면.
 22) 『매일신보』, 1936. 3. 5.
 23) 『매일신보』, 1935. 12. 19.
 24) 류미나(2007), 앞의 논문, 61~62면, 72~73면; 박영미, 앞의 논문, 242면.

는 의도와 결부되었다. 전시체제의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국신민” 양성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정시교화 정책이 주요하게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²⁵⁾ 1937년의 중일전쟁을 목전에 둔 1936년에 일제가 명륜학원 규정을 개정해 ‘가족 국가관’에 바탕을 둔 ‘국민 도덕론’을 다시금 강조하며 유교적 ‘충효’ 관념을 전유하고, 입학 자격 완화를 통해 이런 이데올로기를 적극 전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꼭 의미심장하다.

이에 주인을 향한 노비 만석의 충성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충노 만석전>의 서사를 단순히 충직한 노비의 미담으로만 파악하거나 전통적 유교 관념을 회복하려는 차원에서만 해석할 수는 없음이 명백해진다. 이는 ‘가족 국가관’에 기반해 천황에 대한 효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충을 직결시킴으로써, 1936년의 준전시체제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국신민”을 양성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반영한 ‘국민 도덕론’의 교묘한 서사적 실천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즉, <충노 만석전>은 박씨의 ‘열’이 아닌 만석의 ‘충’을 강조하고, 노비 만석의 ‘충’을 가족의 ‘효’와 국가에 대한 ‘충’으로 치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국민 도덕론’의 서사로서 기획된 측면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일제 조선총독부가 연재소설을 통치 이데올로기의 효율적인 선전 수단으로 판단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결과 <충노 만석전>의 사례처럼 조선총독부의 기초 혹은 요구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연재소설 기획 단계부터 개입되거나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로 『매일신보』가 그에 영합해 일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어느 정도 부역하기도 했음이 확인된다. 『매일신보』가 일제의 조선 통치 정책과 홍보, 선전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²⁶⁾ 총독정치에 대한 선전과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²⁷⁾ <충노 만석전>의 기획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껏 선행연구는 대개 <충노 만석전>을 포함하는 이보상의 『매일신보』

25) 1937년 이전의 시기가 본격적인 전시체제를 준비하는 준전시체제기였음과 관련해서는 조성운, 『전시체제기 일본시찰단 연구』,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1062면, 1066~1069면, 1070면, 1092면.

26)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0~11면.

27) 정진석, 앞의 책(2005), 213면.

연재소설 일군(一群)과 관련해 전통에 바탕을 둔 점, 역사적 사실을 부연한 점, 한문 형태체로 창작된 점을 주목하며 소중한 학술적 성과를 제출해 왔다. 이에 유교 질서의 회복 도모,²⁸⁾ 유교 전통적 이념을 통한 국가적 위기의 타개,²⁹⁾ 보사의식 및 이를 통한 가치의 제고³⁰⁾ 등이 작품의 주요한 창작 동기이자, 서사적 특징으로 규명될 수 있었다. <충노 만석전> 또한 충, 효와 같은 유교적 관념을 강조하고 전통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이러한 관점은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선행연구는 <충노 만석전>에서 강조된 전통적 가치, 유교적 이념 등이 실은 일제의 의도에 의해 왜곡, 전유된 것이었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보완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한다.³¹⁾ 예외적으로 이보상의 연재소설과 관련해 매체의 전략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은애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보상의 연재소설들을 “이보상이 유교적 명분을 앞세우며 고소설 양식을 차용하여 창작한 역사소설들은 (신문측의 의도에도 전혀 시국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제국이라는 메타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³²⁾

즉 일제 기관지라는 『매일신보』의 매체적 특성이 연재소설에 끼친 내밀한 영향을 살피지 못한 결과, <충노 만석전>이 기관지의 연재소설로서 ‘가족 국가관’에 기반해 ‘국민 도덕론’을 서사적으로 교묘하게 실천하고, 식민 통치의 이 같은 이데올로기를 대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미처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껏 『매일신보』의 연재소설 중 고전 서사를 재창작한 형식의 이른바 ‘구소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획의 배경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보다 정밀한 논의를 통해 보완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8) 김성철(2012), 앞의 논문, 331~332면.

29) 이대형(2015), 앞의 논문, 238~240면; 김도형, 앞의 논문, 197~198면.

30) 이대형(2015), 앞의 논문, 234~235면; 이대형(2015), 앞의 논문, 241면.

31)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서양을 대항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의 담론, ‘동양문화 통일’을 도모할 논리로 ‘황도를 부익(扶翼)하는 유교’라는 ‘황도유교’ 개념을 새롭게 내세웠던바, 그 과정에서 역성혁명(易姓革命)과 선양방벌(禪讓放伐)의 배제, 효를 충보다 중히 여기는 충효 불일치 사상의 부인, 충효일치의 강조 등을 통해 전통 유교의 이념이 왜곡되었음은 류미나(2019), 앞의 논문, 251면, 235면; 강해수, 앞의 논문, 425~437면 참조.

32) 조은애, 앞의 논문, 436~437면, 440~447면 참조.

마지막으로 <충노 만석전>은 실제로 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일제의 기획 의도보다 상업적 대중 서사로서의 특징을 훨씬 짙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는 『매일신보』가 민간지와 달리 검열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편이었기에,³³⁾ 소설의 기획 단계에서 총독부의 기조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면 실제로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구애를 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 당대 『매일신보』는 민간지와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대 상업적 매체로서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던바 이런 상황은 <충노 만석전>의 서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III. 근대 상업적 매체로서의 『매일신보』

<충노 만석전>의 서사를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신보』가 일제의 기관지이기도 했지만, 신문이라는 근대 상업 매체이기도 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920년대에 삼대 민간 신문의 창간과 함께 신문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기사가 상품화되기 시작한 이래³⁴⁾ 1930년대에는 독자들이 1920년대 초기 언론에 대한 향수를 가질 정도로 신문 경영자들은 수지 타산을 가장 우선적인 경영 방침으로 생각했다.³⁵⁾ 이런 경쟁적 상황에서 『매일신보』는 1920년대에서 1934년까지 발행 부수가 3만 부를 넘지 못할 정도로 고전했다.³⁶⁾ 1939년에 이르러서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를 모두 제칠 수 있었던 것이다.³⁷⁾

33) 정진석(2005), 앞의 책, 213~215면, 239~240면.

34)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7면.

35) 이는 비록 민간지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나, “경영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 부닥치자 상업성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서술은 당대 『매일신보』의 상황에도 적용될 것이다. 정진석,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한국언론 100년, 그 역사적 성격』, 정진석 외,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민음사, 1996, 32면.

36) 이회정, 『193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 문학의 전개 양상: 미디어적 전략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7~8면.

37)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553면.

이에 그 이전까지 『매일신보』는 다른 민간지에 비해 약한 사세를 보완하기 위해 연재소설을 확대하고 수용 독자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독자를 포섭하고자 힘써왔다.³⁸⁾ 특히 신문 연재소설이 독자 유인력을 크게 발휘하는 매력적인 콘텐츠였음을 감안할 때,³⁹⁾ 『매일신보』의 연재소설인 <충노 만석전>의 서사적 특질을 실상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 해당 신문사의 당시 운영 상황이나 그에 따른 판매 전략 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이보상이 주로 고전 서사에 전통을 두고 창작한 한문 현토체 소설을 연재한 기간은 1930년부터 1942년 사이였고, <충노 만석전>이 연재된 시기는 1936년이었다. 이때 <충노 만석전>을 비롯한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이 줄줄이 『매일신보』에 연재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매일신보』가 처해 있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매일신보』가 지식인 독자와 대중 독자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연재소설에서 “이중의 서사물 연재 구도”를 지속시켜 왔음이 지적된바, 이보상의 연재소설 또한 주로 이런 구도 내에서 이해되어 왔다.⁴⁰⁾

『매일신보』는 1930년 2월 11일에야 본격적인 혁신을 했다고 평가된다. 지면을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고, 신활자(新活字) 주조기(鑄造機)를 구입하며, 지면 운용 방식을 바꿔 이전보다 지면의 총 단수를 30단쯤 늘리고 문학의 연재를 급격히 늘려나갔던 것이 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⁴¹⁾ 이처럼 창간 25주년을 기념한 본격 혁신의 일환으로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1930년에 있었는데,⁴²⁾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의 연재가 마침 그 해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 연재를 『매일신보』가 근대 상업적 매체로서 경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사측의 전략 및 혁신 시도라는 맥락에서 파악

38) 이희정(2013), 앞의 논문, 7~8면.

39) 강부원, 『총력전 시기 『每日新報』의 지면 구성과 매체 운용 - 學藝面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416면.

40) 김영민, 앞의 논문, 232~234면; 이승은, 앞의 논문, 86~87면; 조은애, 앞의 논문 436~444면 참조.

41)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7면.

42) 조은애, 앞의 논문, 442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4년부터 단행된 독자층 통합 전략으로 인해, 지식인과 일반 대중을 겨냥해 두 개의 연재소설을 배치하던 이전의 “이중의 서사물 연재 구도”는 『매일신보』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상황이었다.⁴³⁾ 이에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연재소설들은 1930년에 『매일신보』가 연재소설을 확대하면서, 1924년 이후 중단되었던 “이중의 서사물 연재 구도”를 복원함으로써 독자층의 다변화를 꾀하려 했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이처럼 『매일신보』가 의도적 지면 기획하에 이보상 연재소설이 보수남성층의 성향에 맞는 작가적 해설을 붙이고 한문 현토체 표기 방식을 취하는 등 잠재적 독자군(讀者群)을 고려한 정황,⁴⁵⁾ 1932년 1만 개 이상 존재하던 서당 수로 미루어 이보상의 소설이 많은 한문 해독층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⁴⁶⁾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들은 부수 경쟁에서 고전하던 『매일신보』가 한학교육을 받은, 적잖은 수의 한문 해독층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구상했던 하나의 유인책⁴⁷⁾으로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무려 12년간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의 연재가 지속된 점에서 이런 기획이 꽤 유효했음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매일신보』가 1940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을 계기로 과격적으로 성장하며 치열한 부수 경쟁에서 벗어나자⁴⁸⁾ “이중의 서사물 연재 구도”가 1940년대에 다시 사라지며, 이보상의 한문 현토체 소설의 연재가 1942년 1월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대 민간 신문이 폐지되고 『매일신보』 단일 체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저널리즘과 문학의 관계는 재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⁴⁹⁾ 이보상의 한문

43)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 후반기 연재소설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98면.

44) 이승은은 이보상의 연재소설 <강감찬전>을 분석하며 이보상의 소설 연재가 이 시기 『매일신보』 등 신문사들이 여러 계층의 독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현대물과 고전물을 함께 연재했던 맥락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바, 본고에 중요한 시사를 주었음을 밝힌다. 이승은, 앞의 논문, 87면 참조.

45) 김영민, 앞의 논문, 221~222면.

46) 이대형(2014), 앞의 논문, 236면.

47) 조은애, 앞의 논문, 442면.

48) 강부원, 앞의 논문, 406면.

49) 조은애, 앞의 논문, 434면.

현토체 소설들이 사측의 상업적 요구에 의해 지속되거나 마무리된 정황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충노 만석전>을 비롯해 15편의 한문 현토체 소설을 연재한 작가 이보상이 『매일신보』 기자의 신분으로서⁵⁰⁾ 사측의 소설 연재 기조를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리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충노 만석전>을 지은 이보상은 『매일신보』의 기자로서 『매일신보』에 가장 많은 장편소설을 연재한 작가이기도 했다.⁵¹⁾ 1933년 3월 26일 자 <독자의 소리>에 대한 이보상의 답변 가운데 “現에 本社記者을시다.”라는 언급이 있는 점, <충노 만석전> 연재 중인 1936년 9월 10일 자와 12월 2일 자에 이보상이 작성한 <병자속강(丙子續講)>이 실려 있는 점 등을 통해 이보상이 『매일신보』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충노 만석전>을 연재했음이 짐작된다.⁵²⁾ 이와 관련해 1938년 『매일신보』 논설부장 유광렬이 “『매일신보』 때는 기자들이 소설가를 겸한” 사정을 언급한 내용도 참조된다.⁵³⁾

이처럼 해당 매체에 소속되어 있던 그의 여건을 고려하면 그가 고전소설이나 야담 등 전통시대 서사 작품들을 활용해 만든 한문 현토체 소설 여러 편을 계속해서 연재한 배경을 이보상이라는 작가 개인의 성향이나 의식에 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이보상이 『매일신보』의 소속 기자로서 사측의 일정한 기조나 요구를 따라 전통시대의 텍스트를 확장해 한문 현토체로 된 일련의 ‘구소설’들을 12년간 연재했고, <충노 만석전>의 연재 또한 그런 흐름 안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충노 만석전>은 야담 텍스트 『계서잡록』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작품인데, 이보상이 <충노 만석전>을 통해 보여준 야담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 『매일신보』가 야담에 가졌던 관심과 긴밀히 조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일신보』는 야담 연재에 가장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던 신문사로 지목되었으며, 특히 <충노 만석전>이 연재되던 시기에 야담에 큰 관심을 기

50) 이대형(2012), 앞의 논문, 284~286면 참조.

51) 『매일신보』 창간 이래 이보상이 가장 많은 장편소설을 연재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조은애, 앞의 논문, 446면.

52) 기사마다 작성 기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어 이보상이 기고한 다른 작성 기사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음을 밝힌다.

53) 서울신문사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신문 100년사 : 1904~2004』, 서울신문사, 2004, 275면.

울였음이 확인된다. 『매일신보』는 1936~1937년 ‘특집판’에 <사화(史話)와 야담(野談)> 난을 신설해 야담을 지속적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1936년 <신춘현상문예작품공모(新春懸賞文藝作品公募)>와 1937년 <사화야담현상모집(史話野談懸賞募集)>을 통해 사화와 야담을 함께 모집하다가 1938년부터 돌연 사화와 야담을 응모 항목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⁵⁴⁾

이보상은 1930년 <심청전>의 연재를 시작한 이래, <별주부전>, <홍부전>, <춘도기우>, <임경업전>, <쌍미합벽>, <강감찬전>까지 줄곧 고전소설을 확장하고 변용한 작품을 『매일신보』에 연재해왔다. 그러다 1936년 연재된 <충노 만석전>에 와서 처음으로 야담 텍스트인 『계서잡록』의 이야기를 활용했으며, 이런 시도는 <충노 만석전> 연재 직후 1936년~1937년에 연재된 <영주화월>로 이어진다. <영주화월> 역시 또 다른 야담 텍스트 『금계필담』의 이야기를 활용한 작품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보상이 <영주화월> 다음 연재소설인 1937년의 <일당육미(一堂六美)>에 와서는 다시 고전소설 『육미당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즉, 고전 서사를 활용한 점에서는 같지만 1936년 연재된 <충노 만석전>과 1936년~1937년 연재된 <영주화월>은 야담 텍스트를 확장하고 변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해 창작된 그 전후의 이보상 연재소설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이는 <충노 만석전>이 이 특정한 시기에 『매일신보』가 야담에 보였던 유난한 관심을 반영한 산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기 『매일신보』의 야담에 대한 고조된 관심 또한 당대 야담이 가졌던 상업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매일신보』가 야담에 가졌던 유난한 관심은 1920년대 말의 이른바 야담 운동 이후, 야담대회가 흥행하고 1930년대 중반부터 『월간야담』(1934.10 창간)과 『야담』(1935.8 창간) 등 야담 잡지가 발간되어 성공을 거두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야담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등 야담에 대한 상업적 관심이 고조된 당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54) 김병길, 앞의 논문, 68면.

55)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한국학』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3~129면 참조.

이상의 고찰을 통해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에는 『매일신보』라는 특정 근대 상업적 매체의 구체적 상황과 관심 또한 긴밀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충노 만석전>은 『매일신보』 사측의 독자 확보 전략에 따라 1930년부터 재소환된 이종의 서사물 연재 구도 아래, 한문 해독층 독자를 포섭할 목적으로 시작되어 12년간 연재가 지속된 일련의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서, 1936년에서 1937년 사이에 특별히 상업적으로 주목되던 야담 장르에 대한 『매일신보』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연재소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1936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보상의 장편소설 <충노 만석전>이 창작되고 연재된 배경을 해당 매체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이에 본고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충노 만석전>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라는 『매일신보』의 정치적 정체성이 서사적으로 투사된 기획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본고는 이 소설이 기존 야담인 『계서잡록』의 ‘열부 박 씨’ 서사를 ‘충노 만석’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노(主奴) 관계를 부자 및 군신 관계로 치환하며 충효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고는 <충노 만석전>이 유교적 충효 관념을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직결시켜 식민지 피지배층을 체제 순응적인 신민으로 길들이려 한 일제 ‘국민 도덕론’의 교묘한 서사적 실천임을 규명하였다.

둘째, 한문 현토체라는 문체의 선택과 야담 소재의 활용 등은 『매일신보』가 근대 상업 매체로서 취한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일신보』는 폭넓은 독자층의 확보가 시급했던바, 이보상의 소설은 한문 해독층을 독자로 포섭하기 위한 상업적 유인책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한문 해독층을 포섭하고자 했던 『매일신보』의 매체 전략이 <충노 만석전>의 서사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특히 어떠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이들을 매체로 유인했는지에 대한 본격적

인 분석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사실 <충노 만석전>은 실제 서사 전개 과정에서 기관지로서 관제 소설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기도, 상업적 서사로서의 면모를 한층 짙게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상업적 서사로서의 구체적인 면면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한바, 이는 별고를 통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⁵⁶⁾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의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이 단순히 고전을 활용해 확장한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식민지 권력의 통치 기제와 근대 매체의 상업적 생존 전략이 결합된 산물이었음을 매체론적 관점에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향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른바 ‘구소설’을 이해하고, 식민지 서사 연구를 심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56) 정보라미, 『『매일신보』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의 서사적 특질』, 『고소설연구』 61, 한국고소설학회, 2026, 심사 중.

참고문헌

1. 자료

- 이보상, <충노 만석전>, 『매일신보』 1936. 1. 12.~10. 17.
『매일신보』, 1936. 3. 5.
『매일신보』, 1935. 12. 19.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

2. 단행본

- 서울신문사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신문 100년사 : 1904~2004』, 서울신문사, 2004.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두리미디어, 2007.
임완혁, 『구연전통과 서사』, 태학사, 2008.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_____, 『언론조선총독부 : 친일언론의 본산을 파헤친 최초의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정진석 외,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민음사, 1996.

3. 논문

- 강부원, 『총력전 시기 『每日新報』의 지면 구성과 매체 운용 - 學藝面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393~428면.
강해수, 『'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교)'담론-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415~451면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한국학』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3~129면.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7면.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91면.
김성철, 『일제강점기 한문소설 작가 震庵 李輔相의 행적과 작품 활동 연구』, 『한국학연구』 4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13~337면.
김영민, 『『매일신보』 소재 장형 서사물의 전개 구도 -192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4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211~241면.
- 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 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17(1), 교육사학회, 2007, 53~77면.
- _____,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 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연구』 63, 한일관계사학회, 2019, 227~261면.
- 박영미, 「일제 강점기 한문고등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소고」,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219~251면.
-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90면.
- 이대형, 「『매일신보』에 연재된 한문현토소설 『春桃奇遇』와 작가 李輔相」,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82~308면.
- _____, 「<충노 만석전(忠奴萬石傳)>과 유흥문화의 담당층」, 『열상고전연구』 39, 열상고전연구회, 2014, 271~300면.
- _____, 「李輔相의 신문연재 장회체 한문현토소설 연구」,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229~253면.
- 이승은, 「이보상 作 <姜邯贊傳>의 서사구성 방식 연구」,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67~90면.
-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 후반기 연재소설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85~329면.
- _____, 「193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 문학의 전개 양상: 미디어적 전략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337~367면.
- 정보라미, 「『계서잡록』 소재 열부 박 씨 이야기의 서사화 과정과 서술 방식」, 『어문연구』 125, 어문연구학회, 2025, 233~266면.
- _____, 「『매일신보』 연재소설 <충노 만석전>의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 61, 한국고소설학회, 2026, 심사 중.
- 조은애, 「전시체제기 『매일신보』 연재소설 연구 - 매체 전략과 문화적 선전·동원 기능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 반교어문학회, 2015, 421~464면.
- 조성운, 「전시체제기 일본시찰단 연구」,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1055~1111면.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충설> 『정부기록보존소 일제문서해제 : 학부·사회교육편』, 2003, 1~318면.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news/viewPublicationList.do?bg_no=22>)

A Study on the Serialization Background of Chungno Manseok-jeon in the Maeil Sinbo through Media Characteristics

Chung, Borami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serialization of Chungno Manseok-jeon, a full-length novel by Lee Bo-sang serialized in the Maeil Sinbo in 1936, in relation to its media characteristics. An expansion of the "Chaste Woman Lady Park" anecdote from the traditional Yadam collection Gyeseo-japrok, the novel is characterized by shifting the narrative focus from "chastity" (烈) to "loyalty" (忠), thereby positioning the servant Manseok as the central protagonist.

The study points out that this narrative transformation was closely linked to the editorial direction of the Maeil Sinbo, the official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pecifically, the recurring substitution of master-servant relationships with father-son and monarch-subject dynamics within the narrative is identified as a sophisticated narrative implementation of the Japanese "National Moral Theory." This ideology sought to facilitate colonial subjectification by directly linking Confucian concept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o devotion toward the Emperor. Furthermore, the decision to serialize Lee Bo-sang's Hanmun-hyeonto (Korean-punctuated Chinese) style novel was a result of a commercial media strategy aimed at incorporating the Chinese-reading demographic into the newspaper's expanding readership during the 1930s.

In conclusion, through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Chungno Manseok-jeon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text of the Maeil Sinbo, born at the intersection of political propaganda as an official organ and commercial necessity for modern newspaper management.

Keywords: Chungno Manseok-jeon, Lee Bo-sang, Maeil Sinbo, Serialized novel,
Official organ, Commercial media, 1930s, Semi-war period

접수일자: 2026. 3. 31.

심사기간: 2026. 4. 1.~2026. 5. 10.

게재결정: 2026. 5. 10.